

혼조조카마치 해설판 6 조카의 쌀창고 「이와부치구라」

현재의 시청 제2청사와 시 소방서가 있는 일대는 에도시대 때 혼조조카의 창고 딸린 저택인 「이와부치구라」가 있던 곳입니다. 이와부치구라는 에도시대 초기 혼조 씨에 의해 조카마치 건설과 동시에 설치되었고 그 후 혼조번 로쿠고 씨에 이어 메이지 4년(1871년) 폐번까지 존속한 중요 시설이었습니다.

현재지 부근에는 나가야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쿄 4년(1687년)의 평면도에는 고요시 강과 오사와 강 합류점 근처에 물윗배가 들어가기 쉬운 저지대 쪽 부지내에 가늘고 길쭉한 창고가 나란히 들어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헤이세이 19년(2007년)과 25년(2013년)에 실시한 발굴조사에서도 평면도와 같이 줄지어 선 건물터나 짐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큰 수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에도시대에 「구라코지」로 불리던 현재의 미쿠라마치는 이와부치구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와부치구라는 영내의 쌀을 관리하는 동시에 번사에게 쌀을 지급하는 지급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혼조번은 이와부치구라 외에도 혼조미나토(후루유키미나토)에 가까운 간논마치에도 번의 쌀창고를 두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혼조성 북쪽의 부케마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급 무사와 최하급 무사가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뻗는 구라코지 거리는 동쪽의 아카누마마치를 거쳐 고요시 강 건너편과 야시마 방면으로 통하는 성 아래의 주요 도로였습니다.

이 설명판은 공익재단법인 동일본철도문화재단의 지방문화사업 지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